미국·영국의 약화사고 현황

1. 미국

○ 미국에서 매년 150만건의 예방 가능한 약화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여기에 지출되는 의료비가 최소한 35억 달러(3조8,500억원)에 이른다고 미국의학연구원 (IOM)이 발표[Institute of Medicine of the National Academies, Preventing Medication Errors, National Academies Press, 2007]

□ 미국과 한국의 약화사고 비교

		인구(2009년)	약화사고 발생건수	인구당 발생건수	비고
미글	국	307,199,900명	1,500,000건	205명당 1건	한국대비 9배 높음

○ 2006년 투약오류로 인한 약화사고 사망자는 7천명이며, 외래 환자 131명당 1명, 입원 환자 854명당 1명이 사망[IOM report, To Err Is Human: Building a safer Health System]

2. 영 국

- 영국 의약품 및 건강상품 규제국(medicines and healthcare products regulatory authority·mhra)은 2004년에서 2006년까지 3년간 영국에서 의약품 부작용으로 3,000여명이 사망했다고 밝힘
- 연도별 사망자 수는 2004년 861명, 2005년 1000명 이상, 2006년 964명으로서 일 반의약품 중에는 아스피린, 이부프로펜 등 진통제 복용으로 인한 위출혈이 많음.

	2004년	2005년	2006년
사망자수	861명	1000명 이상	964명

^{*} 자료 : BBC 2007.12.27 보도(http://news.bbc.co.uk/go/pr/fr/-/2/hi/health/7161196.s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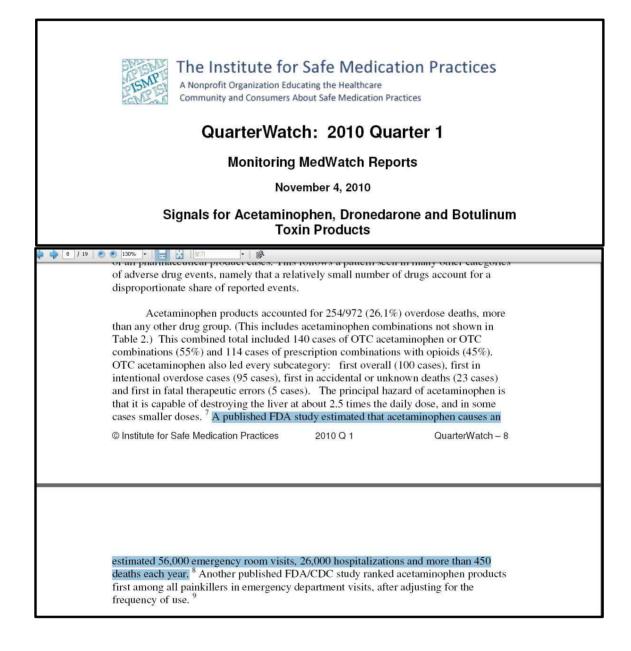
3. 국가별 약화사고 사망자수 비표

	인구(2009년)	약화사고사망자수	인구당 발생건수	비고
미국	307,199,900명	7,000건	43,886명당 1건	한국대비 5.3배
영국	61,772,770명	1,000건	61,773명당 1건	한국대비 3.7배

타이레놀 및 아스피린 약화사고

1. 타이레놀

○ 미국 FDA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매년 56,000명 이상이 아세트아미노펜의 간 독성으로 인하여 응급실을 찾으며, 이중 2,600명이 입원을 하고 450명이 사망하다고 밝힘.



☞ 지난 1월 13일 미국 FDA는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전문의약품에 1회 투여 단위당

최대용량을 325mg으로 제한하고, 심각한 간손상 및 알레르기 반응(호흡곤란, 가려움, 발진)의 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제품 설명서에 표시하도록 조치함. 아울러이러한 조치는 아세트아미노펜으로 인한 간손상 위험 등이 아세트아미노펜의 비의도적 과용(Overdose)과 상관이 있어, 환자가 실수로 과용할 위험을 방지하기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함.

2. 아스피린

- 영국에서는 아스피린과 같은 진통제로 인하여 매년 4,000명이 사망에 이른다고 경고
- 약 2,500명의 관절염 환자가 NSAIDs(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와 같은 일반 진통제로 인하여 위장 출혈로 사망
- 또한, 12,000명 정도는 위장 출혈로 인하여 응급 처치로 목숨을 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Dr.Whittington은 파악되지 않은 환자 수를 포함하면 실제 사례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측

Aspirin alert as 4,000 die after taking tablets



FOUR thousand people bleed to death every year after being prescribed cheap painkillers, a coroner has warned.

Doctors issue anti-inflammatory pills such as aspirin and diclofenac to reduce the pain of arthritis and other conditions.

But the painkillers can cause stomach bleeding which in extreme cases can be fatal.

Now coroner Dr Richard Whittington has written to health chiefs demanding that a new range of safer - but more expensive - drugs should be prescribed.

Around 2,500 arthritis patients die every year from stomach bleeds brought on by common pain-killing drugs known as NSAIDs - non- 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

Related Results

- KILLED BY PAINKILLERS;
 Aspirin alert after coroner's outrage at 4,000
- KILLED BY PAINKILLERS;
 Aspirin alert after coroner's outrage at 4.000
- Facts and ideas from anywhere
- How a new arthritis drug protects your stomach

A further 12,000 patients a year survive major stomach bleeds after emergency treatment. But Dr Whittington is convinced that the true toll is much higher because many cases go undetected.

In his Birmingham court he deals with several cases a month - and he believes the tragedies are preventable.

For the last three years new, safer painkillers known as COX 2s have been available to doctors - but many are reluctant to prescribe them.

Copyright 2001 MGN LTD
Provided by ProQuest Information and Learn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